

## 비육돈 생산단계에 따른 도체품질 특성

김진형\*, 박범영, 조수현, 유영모, 김용곤, 이종문, 박구부<sup>1</sup>, 김경남<sup>1</sup>  
<sup>\*</sup>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, 경상대학교 축산과학부<sup>1</sup>

현재 우리 나라 양돈산업은 IMF라는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고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돈육수출이 중단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, 돼지사육두수 및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외형적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. 이러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고품질 돈육 생산이 필요한 시점이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출규격돈 생산과 고품질 돈육 생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생체중 95~105kg의 랜드레이스 41두와 요크셔 33두, 듀록 30두, 랜드레이스×요크셔(F1) 25두, 랜드레이스×요크셔×듀록(비육돈) 48두를 실험에 공시하여 비육돈 생산단계에 따른 도체품질 특성을 조사하였다. 등지방층 두께는 비육돈이 다른 순종 및 F1종에 비하여 두꺼웠고, 배최장근 단면적은 요크셔종이 가장 넓었다( $p < 0.05$ ). 제5~6늑골부위의 근내지방도(NPPC기준)에서는 듀록종이 가장 좋았으며( $p < 0.05$ ), 육색(NPPC 색도판)은 비육돈이 다른 순종 및 F1종보다 짙은 육색을 보였다. 근육도(NPPC)의 합격율은 비육돈이 93.75%로 가장 높은 반면, 랜드레이스종이 39.02%로 가장 낮았고, 배최장근 단면적의 합격률은 랜드레이스, 요크셔, F1종이 100%였다. 등지방층 두께의 합격률은 F1종이 84%이 가장 높았으나 비육돈이 52.08%로 가장 낮았다. 육색(NPPC) 합격율은 듀록종이 96.67%로 가장 높은 반면에 비육돈이 47.92%로 가장 낮았다. 수분도는 비육돈이 79.17%가 합격률을 보여 가장 높은 반면 랜드레이스종이 가장 낮았다. 근내지방도의 합격율은 비육돈과 듀록종이 93% 이상으로 높았고, F1종이 54.84%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. 육색 명도의 합격율은 비육돈이 95%로 가장 높았다. 한국 도체등급 출현율 중 A 및 B등급 출현율은 비육돈이 93.75%, F1종이 76.0%, 요크셔종이 75.75%, 랜드레이스종이 60.98%로 나타났으며 듀록종이 46.67%로 가장 낮았다. 일본도체등급 평가는 극상등급은 요크셔종 21.21%, F1종 20.0%의 출현율을 보였고, 상등급의 출현율은 요크셔종이 63.34%로 가장 높았다.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비육돈의 도체품질이 육량 및 육질을 좌우할 평가항목에서 개선 효과가 있었으나 수출규격돈 생산을 위해서는 일본도체등급 기준에 적합한 비육돈 생산체계 확립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.